

캠퍼스에 내리 찍는 따사로운 봄 햇살과 함께 찾은 호서대학교 아산 캠퍼스에서 우리나라 안전의 또 다른 한축으로 굳건히 지켜온 김홍 교수를 만났다. 현재 한국안전학회 회장으로 있으며, 호서대학교 신기술창업보육센터장, 산업안전연구센터장 등 국내 활동 뿐만 아니라, 중국 연변대학 초빙교수 및 상임고문과 카자흐스탄 경제대학교 명예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홍교수로부터 우리나라의 올바른 안전방향을 들어본다.

호서대학교

안전시스템공학과 교수 김 홍



처음 안전공학의 길을 걷게된 계기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계기가 무엇인지, 처음 안전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환경기계연구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옆 사무실에는 산업안전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 안전을 접한 계기가 되었고, 안전이 비전있고, 미래지향적인 학문임을 알게된

계기입니다. 그러던 중 대학에 안전공학과가 있음을 알았고, 호서대학교와 인연을 맺으면서 지금까지 안전만을 연구해 왔습니다. 평소 안전에 대한 관심이 평생 업이 된 것이지요. 당시 88년이었는데, 타 대학에 안전공학과가 있었으나 역사가 짧은 관계로 안전에 대한 체계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특히, 안전의 개념을 심어주기 위한 교재는 턱없이 부족하여 일본, 독일의 TÜV 등 선진 외국 대학 교수와의 활발한 교류와 번역사업을 통해 산업안전의 틀을 하나하나 형성하여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안전공학을 확립하고 뿌리내린 곳 중 하나가 호서대학교임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곳에 계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이 무엇인지요.

1995년 기계연구원에서 방폭 관련 설비를 기증받으면서, 교내에 방폭 실험기관인 산업안전기술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사립대나 국영기업에서 관심이 없었던 분야로 우리 대학이 처음 시작하여 성공한 사례로 의미가 컸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호서대학교 강단에 설 때 1학년 학생 중 7명이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중 3명은 현재 저와 함께 호서대학교 교단에서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모교에서 교수로 재직할 수 있다는 것은 동문들로 하여금 긍지와 전통성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일이지요.

그리고 요즘같이 어려운 사회적 환경에서 지방대 위기, 이공대 위기론으로 불안하나 우리 대학은 취업 100%로 신입생들로부터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프로젝트를 산학과 연계하고, 지역적 특성과 하이테크 공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인적자원 수요가 증가한데서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와 비교할 때 산업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어느 정도라 보십니까?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대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안전을 해야 함을 기본으로 여기고 있지요. 그러나 문제는 영세 중소기업으로 안전의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안전이 기업의 경쟁력이라고는 하나 ISO 인증이나 OSHAS 인증으로 인한 것과, 대기업에 한정된 것이지 아직도 역지로 법에 의해 지키는 중소기업 사업장의 안전 의식은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안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나라 산업안전은 외국기업과 대기업 등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 소규모 기업에는 아직도 안전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산업환경에서 정부는 자율 안전을 표방 합니다. 자율 안전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나, 강제적으로 해도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 소규모 중소기업에서 자율안전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율안전은 산업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조급함보다 20년, 30년의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우리 예비 안전인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안전사고는 그만큼 다양하고, 재해도 대형화로, 피해도 큼니다. 즉 안전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 수

요는 비례합니다. 환경 부분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친환경적, 유해성 저감 등으로 반비례하는 반면, 안전은 비례하는 학문으로 사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안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안전공학은 유지되고, 앞으로 발전이 많은 학문이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한국안전학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안전비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을 통해 3가지 일을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 과학기술 학문분야에 안전분야가 없었는데, 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 공무원들 중에 안전을 전공한 사람이 적은 관계로 안전정책 입안에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공무원에 안전전공자들이 많이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문화입니다.

외국의 안전문화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안전교육이 있기에 안전문화가 정착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에 안전교사 자격증 신설을 건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안전문화가 뿌리 내리도록 할 것입니다. 

〈최종덕 기자〉